



우선 개인내적인 영역에서 용서는 개인이 용서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먼저 치료되고 회복되며 인간적 성숙을 이룰 수 있고(김광수, 2002a; 오영희, 1995), 대인관계적인 영역에서도 용서는 관계안의 상호작용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이전의 부정적인 관계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이러한 용서는 Hill(2001)의 주장과 같이 건강한 인간발달에 중심이 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후의 관계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서가 개인내적, 대인관계 영역에서 작용을 하면 관용(tolerance)의 정신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이해와 수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용서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용서의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nright와 Fitzgibbons(2000)는 용서가 부부와 가족치료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부부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거에서 오는 분노와 부부를 갈라놓는 현재의 상처들을 해결하는 데 용서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Knutson(2003)은 부부에게 용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결혼만족도와 가족응집성이 향상되었고 전반적으로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며, 용서 훈련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용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아직 더 많은 연구들이 폭 넓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용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첫째, 용서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Brakinhielm(1993)은 용서를 한 가지 분야의 접근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며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용서의 이러한 복합적이고 모호한 특성 때문에 용서에 대한 정의도 접근이론이나 관점 또는 개인의 용서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 정의에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로 용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학 분야에서는 용서를 통해 결혼만족도나 가족과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부와 가족치료의 영역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부부를 갈라놓는 현재의 상처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용서를 활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다양한 학문에서 용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용서의 개념과 정의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된다. Helb와 Enright(1993)는 용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은 연구뿐만 아니라 치료에서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에 용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박종호(2003)도 진정한 용서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개념적인 합의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일상적인 의미의 용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용서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문화에서의 용서를 주제로 하여 한국인의 용서특성과 한국적인 용서개념에 대한 연구들(오영희, 2006; 임효진, 2005)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이라 사람들이 용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용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것이다. 용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과정모형관점과 발달이론관점, 상호작용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용서를 과정모형관점에서 바라본 선행연구들(Brandsma, 1982; Enright & Fitzgibbons, 2000; McCullough et al., 1997; Smedes, 1984; Wade & Worthington, 2003)에서 용서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연구자들마다 단계를 정의하는 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5단계 내외로 구분된다. 용서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용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 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서를 발달이론관점에서 바라본 선행연구들(이선영, 2007; Enright et al., 1989; Skinner, 1998)에서 용서는 인지발달이나 도덕성 발달, 가족생활주기의 발달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Skinner(1998)는 가족생활주기 발달에 따라 용서를 '순간적인 용서', '저지된 용서', '조건적인 용서', '거짓용서', '결탁하는 용서', '되풀이하는 용서'의 6가지 형태로 보았고, 오영희(1995)는 인지발달적인 관점으로 용서를 '복수로서의 용서', '외적인 용서', '내적인 용서'의 3가지로 형태화 하였다. 용서를 발달로 이해하는 것은 용서가 개인의 발달적 특성 또는 가족이나 주변 환경의 발달적 상황에 따라 용서형태가 달라지며, 용서 자체도 발달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상호작용관점에서 바라본 Hargrave(1994; 문미선 역)는 용서를 '통찰', '이해', '보상기회주기', '용서행동'이라는 네 가지의 영역으로 개념화하고 개인이 관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이 네 가지의 용서개념이 지속적으로 상호교환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연구자가 용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개념이나 정의가 달라지며, 연구의 방향과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서를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각 관점에 따라서 보다 실제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연구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용서는 개념적으로도 복잡하고 미묘한 특성이 있으며,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와 현재 속해있는 사회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김효순, 2003; Holmgren, 1993), 자기애적 성격(Emmos, 2000), 애착유형(Davison, 2002), 원만성(배정은, 2006), 신체적 건강(박종호, 2003), 용서에 대한 불안감

(Williamson, 2004) 등을 들 수 있고, 관계적인 특성으로 생활만족도(박진순, 2006), 결혼만족도(배미자, 2003)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는 양육환경(김효순, 2003), 인종(Paz et al., 2008), 문화성향(전세훈, 2007; 이지연, 2008), 신앙성숙도(한은경, 2003), 종교성향(김수영, 2003)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렇듯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매우 다양한 것에 비해 변인연구들은 주로 각 변인에 따른 용서의 차이 또는 변인과 용서와의 관계를 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용서는 다양한 변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변인과 용서와의 관계만을 살피는 것보다는 전체 변인들과 용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인이 갖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피는 것이 용서를 이해하고 각 변인들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용서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용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는 학문적인 관점이나 상황 및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혼남녀가 용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진정한 용서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나 용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과정모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인간관계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용서를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혼남녀의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전반적 경향과 그 특성을 탐색하여, 이를 통해 차후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의 계획,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용서프로그램 개발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학생이나 일반 성인에 비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단계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혼남녀의 용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용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용서의 개념, 도움을 주는 요인 및 효과

#### 1) 용서의 개념

용서는 이전부터 주로 철학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며,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갈등 해결방식으로서 인간적인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덕목으로

위상을 갖는 개념이라 여겨져 왔다(Morrow, 1984). 그 이외에 법학적 관점에서의 용서는 정의를 온전히 완성시키는 행위로 보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서로에 대한 악의를 줄이며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친 사회적인 행동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관문이자 채택되고 준수되어야 할 정책으로 보고 있다(최인숙, 2005).

용서의 개념은 학문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유교문화권에서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이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으로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하나로 인식하고(김지현, 2007), 한국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도덕적인 됴됨이와 인격적인 성숙을 가늠하는 준거가 되며, 남을 용서하는 것을 인간이 행하는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한다(임효진·김기범, 2004). 서양문화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용서가 강조되어 왔으며, 신에 의한 용서받음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용서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용서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 및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김광수, 2001),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흔히 용서와 혼동되는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 Bass와 Davis(1994)는 '인위적인 용서(artificial forgiveness)'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처를 준 사람이 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상처 주는 행위를 지속하는 미묘한 관계가 성립되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Enright(1991)는 '가짜 용서(pseudo forgiveness)'를 제시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 등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Johnson(1986)이 제시한 '실패한 용서(false forgiveness)'는 상처받은 사람이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표면적으로만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용서 개념에 기초하여 학문적으로 구체화한 용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Enright(2004; 채규만 역)는 용서란 행동, 인지, 정서가 통합된 복합적인 과정으로 부정적인 사고, 행동, 감정을 보다 긍정적인 사고, 행동,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서를 정의에 근거한 판단이나, 상처를 준 대상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을 멈추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선물처럼 베푸는 것으로, 상처를 준 대상의 후회나 사과 등의 행동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발생 가능한 무조건적인 행동으로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Enright와 Zell(1989)은 용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정서적·신체적 또는 도덕적인 성격의 깊고 오래 남는 상처를 입었을 때 발생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스스로 분노나 원한, 두려움의 감정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개인내적인 과정이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짧은 순간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Gassin(1995)은 용서란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 판단, 행동을 극복하고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 감정, 사고 행동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cCullough와 동료들(1997)은 대인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를 입은 쪽이 갖게 되는 동기체제로 용서를 정의하였는데, 그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갖는 동기와 상대방에 대해 해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며, 용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동기의 변화로 보았다. 즉, 용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멀리하려는 동기를 줄이고 관계를 건설하거나 긍정적인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분노나 미움을 포기하며, 그 이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학문적 정의들을 종합하여 용서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용서는 개인에게 상처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긍정적인 감정이나 사고, 행동으로 변화시키려는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용서는 상처를 준 대상과의 관계가 없이도 개인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행위이다. 넷째, 용서는 상처를 준 대상에 대하여 정의에 기초한 판단을 중지하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 용서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은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용서와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로 용서의 복합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로는 우선 공감이 있다. 배정은(2006)은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어 개인의 원만성과 용서에 작용하는 공감의 매개과정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인지적 공감의 향상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용서수준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인지적 공감이 선행되어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준 결과로 용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Wade와 Worthington(2003)은 공감이 용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여 용서를 촉진하는 매개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기범·임효진(2006)의 연구에서는 공감과 사과, 상대방과의 친밀감, 상대방의 변화노력 등의 매개요인이 어떻게 개인이 심각한 피해와 작용하여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공감은 용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사과를 통해 촉진되며, 그 사이에 상대방의 변화노력과 친밀감 정도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도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훈(2008)의 연구에서는 문화성향과 용서의 정적관계가 보고되어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강할수록 용서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집단주의 문화는 관계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관계중심적인 상황에서는 대인관계의 성격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최상진, 2000), 관계의 유지나 갈등의 해소를 위해 용서를 더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용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가족환경이나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자의 성향 등이 있다. 그 외에 용서를 하게 된 이유(임효진, 2005)나 용서를 하는 데 도움이 된 것과 방해가 된 것(오영희, 2006)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상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공감, 시간의 흐름, 관계의 성격 또는 관계의 질(친구,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성(사과, 행동의 변화, 고痛的 목격), 나의 인내심, 상대방의 보상, 상호간의 신뢰, 문제가 발생했던 환경 자체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용서에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용서의 효과

용서에는 고통이 되풀이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으며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Benson, 1992). 또한,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며(Smedes, 1984), 용서를 통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 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고통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며,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이자 용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용서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된 용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상처 경험자를 대상으로 용서프로그램을 진행한 김광수(2002b)의 연구에서 용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인 분노의 정도를 낮추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서훈련 집단상담을 진행한 황혜자·김태훈(2006)의 연구에서 용서는 분노를 표출하고 억제하는 분노통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분노를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하여, 이로 인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희(2005)의 연구에서는 용서교육을 통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보였으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미옥(2007)의 연구에서는 용서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오영희(2006)의 연구에서 용서의 결과로 미움이나 분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였다는 것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효진(2005)의 연구에서도 용서 이후 달라진 점을 분석한 결과 복수심이 사라지거나, 미움이 줄었다는 등의 부정적 감정의 해소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얻거나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의 발달, 인간적인 성숙,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성장 등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용서가 개인의 심리적인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용서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새터민을 대상으로 용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 대한 박철욱(2007)의 연구에서 개인이 외상 경험 이후에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고통을 준 대상이나 그 상황을 용서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완충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실제적으로 그의 연구 결과에서도 용서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인 외상의 재경험 회피와 생리적 각성반응의 증가(심장박동수나 혈압의 증가, 수면곤란, 집중력 감소 등)를 예측하게 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Kathleen과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 용서는 약물과 알콜 사용량을 줄이고, 혈압과 심근 산소소비량(Rate Pressure Product)을 낮추었는데, 이것은 용서가 심박동수를 낮추고 신체적인 증상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Pingleton(1989)는 용서가 암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제안하였고, Kaplan(1992)은 용서가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용서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

셋째, 용서는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이지연(2008)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대인신뢰감의 증가 역시 인간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Poloma와 Gallup(1991)은 성인 남녀를 1,030명을 무선표집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서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Toussaint et al., 2001에서 재인용). 또한, 용서와 사회적 고독(social loneliness)을 연구한 Day와 Maltby(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사회적 고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의 증가가 사회적 고독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철저히 고독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잘못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고독이 감소하여 대인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용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서정선, 2007)에서 남편과 부인의 배우자를 향한 용서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용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대상이나 상황, 목적 등에 따라서 용서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용서과정

용서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용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용서에 대한 선행연구들(Brandsma, 1982; Enright & Fitzgibbons, 2000; McCullough et al., 1997; Smedes, 1984; Wade & Worthington, 2003)을 통해 구체적으로 용서과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용서과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단계에 차이가 있다.

먼저, Brandsma(1982)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기로 선택하는 단계, 편안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에 직면하는 단계, 타인의 욕구나 동기, 행동의 원인 등을 살피는 단계를 지나면서 분노나 원한 등을 내려놓는 것에 가까워지게 되어 마지막으로 복수하거나 저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4개의 단계로 용서 과정을 설명하였다.

Enright와 Fitzgibbons(2000)는 용서 과정을 정리하여 노출 단계, 결정단계, 작업단계, 결과단계, 심화단계로 설명하였다. 노출단계에서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경험과 상처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되새기며, 자신의 반응양식이나 지금까지의 관점에 대해 통찰이 이루어지고, 결정단계에서는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깨닫고 용서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용서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작업단계에서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고 이해나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며, 심화단계에서는 자신의 고통이나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용서에 대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용서의 유의성을 인식하게 된다.

김광수(2001)는 용서 과정을 용서 전 단계와 용서과정단계, 용서결과 단계의 3단계로 설명하였다. 용서 전 단계는 개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단계이고, 용서과정단계는 다시 6개의 하위단계로 구분된다. 각 하위단계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단계,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 개인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인식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 용서에 대한 동기부여 단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단계, 용서전략을 실행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용서결과 단계는 문제의 해결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용서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이 그 특성상 반드시 용서를 발생시키는 선행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김광수(2001)의 용서 전 단계와 같이 Smedes(1984)도 이것을 용서 이전 단계로 구분하여 상처받는 단계로 표현하였고, 발생한 상처가 개인적이고, 부당하고, 깊을수록 용서에 적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발생한 상처는 개인에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도덕적, 신체적, 재정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그 다양성을 제시하였다(Denton & Martin, 1998; Murphy, 1982; Smedes, 1984; 김광수, 1999에서 재인용).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서과정 이전에는 반드시 용서를 발생시키는 경험을 하는 단계가 선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를 용서 전 단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용서과정 단계의 첫 단계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소득, 결혼년수 등이 있다.

먼저, 최인숙(2005)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결혼년수에 따라 용서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학력과 소득이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용서수준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고 결혼년수가 긴 경우 용서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다. 서정선(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용서수준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배미자(2003)와 Connery(2002)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사회적 조망 수용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을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진순, 2006; 최미옥, 2007)들에서 연령에 따른 용서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연령이 직접적으로 용서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오영희(2006)의 연구에서는 용서에 대한 정의나 용서의 조건이 필요한가의 여부, 상처를 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과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이것은 용서를 인식하는 방식에 연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현(2007)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상처를 받는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처에 대한 양적, 질적 경험이 다양해 질 수 있고, 인지·정서의 발달로 인해 상처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기에 연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연령이나 결혼년수 등에 따른 용서수준의 양적인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달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와 용서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Paz와 동료들(2007)은 종교의 종류에 따라 용서수준을 보았는데, 불교인 사람들의 용서수준이 기독교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김효순(2003)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교인 사람들보다 행동적 영역에서의 용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수영(2003)은 종교의 성향(내재적 종교성향/ 외재적 종교성향)에 따른 용서수준을 비교하여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용서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사대상이나 기타 연구환경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조금씩 결과의 차이를 보였으나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종교, 결혼년수를 살펴보고자 하며, 종교의 종류나 성향 이외에 개인이 지각하는 신앙심의 정도가 용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용서과정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용서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용서과정의 첫 단계인 용서를 발생시키는 경험을 하는 단계와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기범·임효진(2006)은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면서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의 알고 지낸 기간이 길고, 자신이 받은 피해의 정도가 깊거나 상대방의 가해가 의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상처를 더 깊게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이것을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상처를 깊게 받을수록 상대에 대한 공감력이 저하되고 공감력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용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최인숙(2005)은 개인이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한 기간이나 고통 받은 기간이 길수록 상처의 정도가 깊으며, 용서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통제소재와 용서와의 관계를 살펴본 배준성(2006)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시간 경과에 따른 용서에

긍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고, 영향력 있는 타인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우연 통제소재가 높은 경우도 상황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재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에 기인하거나 욕구가 좌절된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반응 양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인이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용서에도 정적인 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타인 통제소재나 우연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 의한 부당한 상처나 그로 인한 실패에 대한 적대감의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에 귀속시키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 타인이나 상황을 향해 느끼게 되므로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용서와 부적인 상관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처를 남기는 문제, 문제발생 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를 용서과정 변인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 1. 연구문제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들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기혼남녀의 용서 개념,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 용서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기혼남녀의 용서과정 관련변인(상처를 남기는 문제, 문제발생 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소득, 종교 유무, 신앙심, 결혼년수)과 용서과정 관련변인(문제발생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 소재)이 기혼남녀의 용서(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용어의 정의

#### 1) 용서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갖게 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서적 용서, 인지적 용서, 행동적 용서의 통합으로 본다.

#### 2) 용서과정

한 개인에게 오래도록 잊혀 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건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남녀로 하였다.

표집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였고, 자료조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공 교수 세 명에 의해 내용과 어휘상의 난이도가 검토되었으며, 이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연구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조사대상을 찾아가서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과 조사대상에게 접근이 용이한 조사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조사 방법을 교육한 후 설문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위해 회사, 공기업,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단체조사를 하였고, 주변에서 접근이 용이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고, 25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19명과 “부부관계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31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용서 개념, 도움을 주는 요인, 효과 척도

본 설문은 기혼남녀의 전반적인 용서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김광수, 2002a; 오영희, 2006, Connery, 2002; Knutson, 2003; Williamson, 2004)을 참고하여, 기혼남녀의 용서 개념(용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용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용서의 효과(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용서과정 관련변인 척도

본 설문은 박종호(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용서검사지 내에 포함된 기초배경 질문지를 바탕으로 김지현(2007)이 구성한 설문문항과 선행연구들(김광수, 2002a; 배준성, 2006; 오영희, 2006)에서 용서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변인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용서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기혼남녀의 용서과정 관련변인으로 문제발생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를 조사하였고, 변인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용서과정과 관련된 경향을 탐색하기 위해 기혼남녀의 부부관계 안에서 상처를 남기는 문제를 묻는 문항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3) 용서 척도

본 연구에서 정의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 박종호(2006)가 타당화 작업을 거친 EFI-K(Enright Forgiveness Inventory-K)를 사용하였다. EFI는 용서가 정서, 인지, 행동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지며, 6가지 심리적 반응이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적인 전제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Subkoviak et al., 1995).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6가지 심리적 반응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때, 부정적인 행동이 없을 때, 부정적인 판단이 없을 때, 긍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긍정적인 행동이 있을 때, 긍정적인 판단이 있을 때이다. 이상의 6가지 전제는 정서적 용서, 인지적 용서, 행동적 용서의 3개 하위영역으로 개념화되어 측정된다.

EFI는 총 60문항으로 문항들은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한 정서, 행동, 인지영역의 용서수준을 측정한다. 하위영역은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을 포함한다. 정서적 용서는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하여 다정하거나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지 아니면 화가 나거나 상대방이 싫은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긍정적 감정(예: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 다정한 감정을 느낀다)과 부정적 감정(예: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점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 정서적인 용서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용서는 상처를 준 상대방을 착하거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무섭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같이 개인이 현재 갖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생각의 정도를 나타낸다. 상처를 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사고(예: 나는 내 배우자가 착하다고 생각한다)와 부정적 사고(나는 내 배우자가 무섭다고 생각한다)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함을 의미하고, 인지적인 용서를 더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동적 용서는 상처를 준 대상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와주거나 배려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회피하거나 비하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지의 상태를 보여준다. 상처를 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행동(예: 나는 내 배우자를 도와주거나 도와줄 것이다)과 부정적 행동(예: 나는 내 배우자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것이다)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자 함을 의미하고, 행동적 용서를 더 잘 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 매우 그렇다'까지 6점 리커트 방식으로 채점되고,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은 20점에서 12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서적 용서영역 Cronbach's  $\alpha=.97$ , 인지적 용서영역 Cronbach's  $\alpha=.96$ , 행동적 용서영역 Cronbach's  $\alpha=.95$ 로 나타났다. 본 용서척도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용서 척도의 특성

| 척도     | 평균     | 표준편차  | 문항수 | 범위     | 신뢰도 |
|--------|--------|-------|-----|--------|-----|
| 정서적 용서 | 95.01  | 17.13 | 20  | 20-120 | .97 |
| 인지적 용서 | 103.65 | 14.20 | 20  | 20-120 | .96 |
| 행동적 용서 | 95.37  | 14.49 | 20  | 20-120 | .95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s 12.0K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하기 이전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고, 각각의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혼남녀의 용서 개념,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 용서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혼남녀의 용서과정 관련변인(상처를 남기는 문제, 문제발생 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t-test), 교차분석(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소득, 종교 유무, 신앙심, 결혼년수)과 용서과정 관련변인(문제발생 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이 기혼남녀의 용서(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연령은 44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0.1세이다. 남성의 학력은 대졸이 36명(39.1%), 고졸이 22명(23.9%), 전문대졸이 21명(22.8%)순이고, 여성의 학력은 대졸이 48명(44.4%)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9명(26.9%), 대학원졸 이상이 14명(13.0%)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직업은 사무직이 32명(34.8%)과 공무원(15.2%)순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여성은 전업주부 37명(34.3%)와 사무직 23명(21.3%)순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남성이 434.8만원, 여성이 410.4만원이었고,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응답된 소득수준은 201만원에서 400만원대로 남성 52명(56.5%)과 여성 44명(40.7%)이었다. 기혼남녀의 결혼형태는 모두 초혼이었고, 남성의 결혼년수는 평균 15.4년이었고, 여성은 13년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무교가 남성 41명(44.6%), 여성 42명(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남성 30명(32.6%), 여성 41명(38.0%)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0)

| 변인   | 명(%)      |           | 변인      | 명(%)      |          |
|------|-----------|-----------|---------|-----------|----------|
|      | 남(92)     | 여(108)    |         | 남(92)     | 여(108)   |
| 연령   | 20~29세    | 4(4.3)    | 학력      | 중졸 이하     | 4( 4.3)  |
|      | 30~39세    | 27(29.3)  |         | 고졸        | 22(23.9) |
|      | 40~49세    | 34(37.0)  |         | 전문대졸      | 21(22.8) |
|      | 50~59세    | 23(25.0)  |         | 대졸        | 36(39.1) |
|      | 60세 이상    | 4(4.3)    |         | 대학원졸 이상   | 9( 9.8)  |
|      | 평균        | 44.0      |         |           |          |
| 결혼년수 | 5년 미만     | 20(21.7)  | 소득      | 200만원 이하  | 10(10.9) |
|      | 5~10년 미만  | 7(7.6)    |         | 201~400만원 | 52(56.5) |
|      | 10~15년 미만 | 16(17.4)  |         | 401~600만원 | 23(25.0) |
|      | 15~20년 미만 | 16(17.4)  |         | 601만원 이상  | 7( 7.6)  |
|      | 20~25년 미만 | 13(14.1)  | 평균      | 434.8     | 410.4    |
|      | 25년 이상    | 20(21.7)  |         |           |          |
| 평균   | 15.4      |           |         |           |          |
| 결혼형태 | 초혼        | 92(100.0) | 직업      | 전문직       | 11(12.0) |
| 종교   | 무교        | 41(44.6)  |         | 관리·경영직    | 8( 8.7)  |
|      | 기독교       | 30(32.6)  |         | 사무직       | 32(34.8) |
|      | 불교        | 12(13.0)  |         | 판매·서비스직   | 7( 7.6)  |
|      | 천주교       | 7(7.6)    |         | 기술·생산·노무직 | 5( 5.4)  |
|      |           |           |         | 자영업       | 11(12.0) |
|      |           | 공무원       |         | 14(15.2)  |          |
|      |           | 전업주부      | -       |           |          |
|      |           | 기타        | 4( 4.3) |           |          |

2) 기혼남녀의 용서수준 차이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서적 용서에 대한 경향은 남성이 97.22, 여성이 90.25로 남성의 정서적 용서수준이 더 높았으며, 남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t=3.12, p<.01$ )가 나타났다. 인지적 용서에 대한 경향은 남성이 106.48, 여성이 99.39로 남성의 인지적 용서수준이 더 높으며, 남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t=3.76, p<.001$ )가 나타났다. 행동적 용서에 대한 경향은 남성은 97.00, 여성은 91.27로 남성의 행동적 용서수준이 더 높으며, 남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t=3.06, p<.01$ )가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용서, 인지적 용서, 행동적 용서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용서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용서는 성별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남녀의 용서 개념, 도움을 주는 요인 및 효과

1) 용서의 개념

<표 4>를 통해 기혼남녀의 용서개념을 살펴보면, 기혼남성은 용서개념에 대한 응답은 '이해/포용/공감' 35명(20.4%), '잘못에 대한 판정' 19명(11.1%), '친밀감/신뢰감의 회복' 17명

(9.9%), '화해' 16명(9.3%), '관계개선' 14명(8.1%)의 순이었 고, 기혼여성은 '이해/포용/공감' 40명(20.6%), '친밀감/신뢰감 의 회복' 29명(15.0%), '개인내적인 치유과정' 27명(13.9%), '망각', '참기/인내', '잘못에 대한 판정' 13명(6.7%)의 순이었 다. 기혼남녀 모두에게서 용서로 가장 많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개념은 '이해/포용/공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

다음의 <표 5>는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혼남성의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해/공감의 정도' 29명(17.0%), '신뢰/친밀감의 정도' 27명(15.8%), '개인의 인간성' 25명(14.6%)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혼여성의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변화노력/행동' 36명 (18.2%), '반성/사과표현' 31명(15.7%), '이해/공감의 정도' 27 명(13.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 용서의 효과

마지막으로 용서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이 남성 43명(46.7%)과 여성 47명(43.5%)이 '자기 성장'을 가장 많이 기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 회복'이 남성 32명

<표 3> 기혼남녀의 용서수준 차이

| 용 서    | 평균(표준편차)      |              | t값      |
|--------|---------------|--------------|---------|
|        | 남             | 여            |         |
| 정서적 용서 | 97.22(13.84)  | 90.25(17.94) | 3.10**  |
| 인지적 용서 | 106.48(11.09) | 99.39(15.51) | 3.76*** |
| 행동적 용서 | 97.00(11.59)  | 91.27(14.85) | 3.06**  |

\*\*p<.01, \*\*\*p<.001

<표 4> 기혼남녀의 용서 개념(복수응답)

| 남 성 |             | 명(%)       | 여 성 |             | 명(%)       |
|-----|-------------|------------|-----|-------------|------------|
| 1   | 이해/포용/공감    | 35(20.4)   | 1   | 이해/포용/공감    | 40(20.6)   |
| 2   | 잘못에 대한 판정   | 19(11.1)   | 2   | 친밀감/신뢰감의 회복 | 29(15.0)   |
| 3   | 친밀감/신뢰감의 회복 | 17( 9.9)   | 3   | 개인내적인 치유과정  | 27(14.0)   |
| 4   | 화 해         | 16( 9.3)   | 4   | 망 각         | 13( 6.7)   |
| 5   | 관계개선        | 14( 8.1)   | 5   | 참기/인내       | 13( 6.7)   |
| 6   | 개인내적인 치유과정  | 13( 7.6)   | 6   | 잘못에 대한 판정   | 13( 6.7)   |
| 7   | 참기/인내       | 12( 7.0)   | 7   | 화 해         | 12( 6.2)   |
| 8   | 망 각         | 10( 5.8)   | 8   | 관계개선        | 12( 6.2)   |
| 9   | 도움주기/공정적기대  | 9( 5.2)    | 9   | 도움주기/공정적기대  | 11( 5.7)   |
| 10  | 종교적/도덕적 선행  | 8( 4.7)    | 10  | 부정적정서의 감소   | 7( 3.6)    |
| 11  | 보상받기        | 4( 2.3)    | 11  | 보상받기        | 4( 2.1)    |
| 12  | 의무/책임       | 4( 2.3)    | 12  | 회피/무관심      | 3( 1.6)    |
| 13  | 부정적정서의 감소   | 4( 2.3)    | 13  | 자비/동정       | 3( 1.6)    |
| 14  | 회피/무관심      | 3( 1.7)    | 14  | 종교적/도덕적 선행  | 3( 1.6)    |
| 15  | 자비/동정       | 2( 1.1)    | 15  | 복 수         | 2( 1.0)    |
| 16  | 복 수         | 1( 0.6)    | 16  | 의무/책임       | 1( 0.5)    |
| 17  | 약속/헌신       | 1( 0.6)    | 17  | 약속/헌신       | 1( 0.5)    |
| 합 계 |             | 172(100.0) | 합 계 |             | 194(100.0) |

<표 5> 기혼남녀의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복수응답)

| 남 성 |            | 명(%)       | 여 성 |            | 명(%)       |
|-----|------------|------------|-----|------------|------------|
| 1   | 이해/공감의 정도  | 29(17.0)   | 1   | 변화 노력/행동   | 36(18.2)   |
| 2   | 신뢰/친밀감의 정도 | 27(15.8)   | 2   | 반성/사과 표현   | 31(15.7)   |
| 3   | 개인의 인간성    | 25(14.6)   | 3   | 이해/공감의 정도  | 27(13.6)   |
| 4   | 반성/사과 표현   | 16( 9.4)   | 4   | 시간의 흐름     | 24(12.1)   |
| 5   | 시간의 흐름     | 16( 9.4)   | 5   | 신뢰/친밀감의 정도 | 18( 9.1)   |
| 6   | 변화 노력/행동   | 16( 9.4)   | 6   | 개인의 인간성    | 15( 7.6)   |
| 7   | 긍정적 감정/기억  | 14( 8.2)   | 7   | 관계의 필요성    | 14( 7.1)   |
| 8   | 관계의 필요성    | 7( 4.1)    | 8   | 종교적 신념     | 12( 6.1)   |
| 9   | 환경/상황의 변화  | 7( 4.1)    | 9   | 긍정적감정/기억   | 8( 4.0)    |
| 10  | 종교적 신념     | 6( 3.5)    | 10  | 환경/상황의 변화  | 7( 3.5)    |
| 11  | 약속/헌신      | 4( 2.3)    | 11  | 보 상        | 3( 1.5)    |
| 12  | 보 상        | 2( 1.2)    | 12  | 고통/후회의 목격  | 2( 1.0)    |
| 13  | 고통/후회의 목격  | 2( 1.2)    | 13  | 약속/헌신      | 1( 0.5)    |
| 합 계 |            | 171(100.0) | 합 계 |            | 198(100.0) |

<표 6> 기혼남녀가 기대하는 용서의 효과

| 남 성 |           | 명(%)      | 여 성 |           | 명(%)      |
|-----|-----------|-----------|-----|-----------|-----------|
|     | 자기 성장     | 43(46.7%) |     | 자기 성장     | 47(43.5%) |
|     | 부정적 정서 회복 | 32(34.8%) |     | 부정적 정서 회복 | 40(37.0%) |
|     | 정의 실현     | 13(14.1%) |     | 정의 실현     | 12(11.1%) |
|     | 신체적 건강 회복 | 4( 4.4%)  |     | 신체적 건강 회복 | 9( 8.4%)  |
| 합 계 |           | 92(100%)  | 합 계 |           | 108(100%) |

(34.8%), 여성 40명(37.0%)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관련변인의 전반적 경향

#### 1) 기혼남녀의 부부관계 안에서 상처를 남기는 문제

다음의 <표 7>과 같이 부부관계 안에서 상처를 남기는 문제로 남성 30명(13.6%)과 여성 36명(13.4%)이 ‘가족관계(시댁/처가, 친인척관계 등)’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배우자의 이해하기 힘든 성격 및 가치관’이 28명(12.7%)으로 ‘가족관계(시댁/처가, 친인척관계 등)’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생활습관 및 태도’ 21명(9.5%), ‘부부간 의사소통’ 19명(8.6%), ‘배우자의 무관심/외면/거부’ 19명(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부부간 의사소통’을 34명(12.6%)이 응답하여 ‘가족관계’와 비슷하게 상처를 남기는 문제로 나타났고, ‘생활습관 및 태도’ 32명(11.9%), ‘배우자의 이해하기 힘든 성격 및 가치관’ 31명(11.5%)도 높게 나타났다.

#### 2) 관련변인의 전반적 경향과 성차

기혼남녀의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제발생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인식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기혼남녀의 문제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결혼 후 ‘1년 1개월에서 3년 사이’가 총 21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결혼 후 ‘3개월 이하’가 30명(2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문제발생시기의 평균은 55.18개월이고, 여성은 38.80개월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부관계 안에서 상처를 남기는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가 더 이른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 $t=2.17, p<.05$ )를 보였다.

고민한 기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44명(47.8%), 여성은 49명(45.4%)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3개월 이하’가 문제로 인해 ‘고민한 기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고민한 기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23.3개월, 여성은 40.1개월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문제로 인해 더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1.97, p<.05$ )가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남성이 2.82(1.23)이고 여성이 3.43(1.24)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제를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33, p<.001$ ).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는 남성의 경우 응답자 중 대부분인 78명(96.3%)가 ‘의도성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에도 다수인 81명(84.4%)이 ‘의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표 7> 부부관계 안에서 상처를 남기는 문제(복수응답)

| 상처를 남기는 문제              | 명(%)       | 상처를 남기는 문제              | 명(%)       |
|-------------------------|------------|-------------------------|------------|
|                         | 남성         |                         | 여성         |
| 1 가족관계(시댁/처가, 친인척관계 등)  | 30(13.6)   | 1 가족관계(시댁/처가, 친인척관계 등)  | 36(13.4)   |
| 2 배우자의 이해하기 힘든 성격 및 가치관 | 28(12.7)   | 2 부부간 의사소통              | 34(12.6)   |
| 3 생활습관 및 태도             | 21( 9.5)   | 3 생활습관 및 태도             | 32(11.9)   |
| 4 부부간 의사소통              | 19( 8.6)   | 4 배우자의 이해하기 힘든 성격 및 가치관 | 31(11.5)   |
| 5 배우자의 무관심/외면/거부        | 19( 8.6)   | 5 평가/비교/비난              | 20( 7.4)   |
| 6 경제문제                  | 18( 8.1)   | 6 배우자의 무시/조롱            | 14( 5.2)   |
| 7 평가/비교/비난              | 17( 7.7)   | 7 배우자의 무관심/외면/거부        | 13( 4.8)   |
| 8 의 심                   | 12( 5.4)   | 8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           | 13( 4.8)   |
| 9 배우자의 무시/조롱            | 12( 5.4)   | 9 애정/친밀감의 변화            | 13( 4.8)   |
| 10 가족원의 건강(장애, 질병등)     | 11( 5.0)   | 10 외도(배반)               | 11( 4.1)   |
| 11 애정/친밀감의 변화           | 11( 5.0)   | 11 경제문제                 | 11( 4.1)   |
| 12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          | 7( 3.2)    | 12 폭력적 행동               | 10( 3.7)   |
| 13 외도(배반)               | 4( 1.8)    | 13 가족원의 건강(장애, 질병등)     | 9( 3.3)    |
| 14 폭력적 행동               | 4( 1.8)    | 14 의 심                  | 8( 3.0)    |
| 15 성생활                  | 3( 1.4)    | 15 성생활                  | 6( 2.2)    |
| 16 배우자의 중독문제            | 3( 1.4)    | 16 배우자의 중독문제            | 6( 2.2)    |
| 17 종 교                  | 2( 0.9)    | 17 종 교                  | 2( 0.7)    |
| 합 계                     | 221(100.0) | 합 계                     | 269(100.0) |

<표 8> 관련변인의 전반적 경향

| 변 인          | 항목/범위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X <sup>2</sup> /t값 |
|--------------|-----------------------------|------------------|------------|--------------------|
|              |                             | 남                | 여          |                    |
| 문제발생시기       | 3개월 이하                      | 19(20.7)         | 30(27.8)   |                    |
|              | 4~6개월                       | 7( 7.6)          | 8( 7.4)    |                    |
|              | 7~12개월                      | 8( 8.7)          | 20(18.5)   |                    |
|              | 1년 1개월~3년                   | 21(22.8)         | 20(18.5)   |                    |
|              | 4~6년                        | 12(13.0)         | 12(11.1)   |                    |
|              | 7~9년                        | 7( 7.6)          | 6( 5.6)    |                    |
|              | 10년 이상                      | 18(19.6)         | 12(11.1)   |                    |
|              | 평 균                         | 56.7             | 37.5       | 2.17*              |
| 고민한 기간       | 3개월 이하                      | 44(47.8)         | 49(45.4)   |                    |
|              | 4~6개월                       | 10(10.9)         | 11(10.2)   |                    |
|              | 7~12개월                      | 11(12.0)         | 10( 9.3)   |                    |
|              | 1년 1개월~3년                   | 13(14.1)         | 10( 9.3)   |                    |
|              | 4~6년                        | 3( 3.3)          | 7( 6.5)    |                    |
|              | 7~9년                        | 4( 4.3)          | 7( 6.5)    |                    |
|              | 10년 이상                      | 7( 7.6)          | 14(13.0)   |                    |
|              | 평 균                         | 23.3             | 40.1       | -1.97*             |
| 문제의 심각성 정도   | 별로 심각하지 않다(1) - 매우 심각하다(5)  | 2.82(1.23)       | 3.43(1.24) | -3.33***           |
|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 의도성이 있다                     | 3( 3.7)          | 15(15.6)   | 6.84**             |
|              | 의도성이 없다                     | 78(96.3)         | 81(84.4)   |                    |
| 상처받은 정도      | 별로 받지 않았다(1) - 매우 크게 받았다(5) | 3.01(1.25)       | 3.85(1.13) | -4.76***           |
| 상처의 부당성 여부   | 부당하다                        | 33(42.3)         | 76(76.0)   | 20.97***           |
|              | 부당하지 않다                     | 45(57.7)         | 24(24.0)   |                    |
| 상처의 부당함정도    | 별로 부당하지 않다(1) - 매우 부당하다(5)  | 2.85(1.11)       | 3.84(1.11) | -4.63***           |
| 문제발생 책임 소재   | 나자신                         | 23(29.1)         | 4(4.0)     | 30.55***           |
|              | 상처를 준 사람                    | 7( 8.9)          | 33(32.7)   |                    |
|              | 그 당시의 상황                    | 43(54.4)         | 53(52.5)   |                    |
|              | 문제자체의 심각성                   | 6( 7.6)          | 11(10.9)   |                    |

\*p<.05, \*\*p<.01, \*\*\*p<.001

보였지만, 남성에 비해 ‘의도성이 있다’는 응답이 총 15명(15.6%)으로 남성 3명(3.7%)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남녀별로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를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6.84, p>.01$ ). 다음으로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정도를 물어본 결과 남성의 평균은 3.01(1.25)이었고, 여성의 평균은 3.85(1.13)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처를 더 깊게 받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4.76,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처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chi^2=20.96, p<.001$ )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33명(42.3%)이 상처가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45명(57.7%)은 상처가 ‘부당하지 않다’고 응답해 자신의 상처를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76명(76%)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24명(24%)만이 자신이 받은 상처가 ‘부당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부당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처의 부당함 정도에서도 남성의 평균이 2.85(1.11)에 비해 여성은 3.84(1.11)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상처를 더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4.62, p<.001$ )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제발생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는가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chi^2=30.55, p<.001$ )를 보였다. 남성은 ‘그 당시의 상황’에 책임소재를 두는 사람이 43명(54.4%)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나 자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29.1%)로 나타났다. 여성은 ‘그 당시의 상황’에 책임소재를 두는 사람이 53명(52.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상처를 준 사람’이 33명(32.7%)로 나타나 남녀 간에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4. 기혼남녀의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방지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부록 1>,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과 결혼년수( $r=.91, p<.01$ ), 종교유무와 신앙심( $r=.85, p<.01$ ), 문제의 심각성 정도와 상처받은 정도( $r=.78, p<.01$ ), 상처의 부당성 여부와 상처의 부당함 정도( $r=.81, p<.01$ ), 나 자신 책임소재와 그 당시의 상황 책임소재( $r=-.70, p<.01$ ) 사이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 변인들 중 연령, 신앙심, 문제의 심각성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그 당시의 상황 책임소재를 제외하였다.

여성의 경우, 연령과 결혼년수( $r=.82, p<.01$ ), 종교유무와

<표 9> 정서적 용서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변인                 | 남              |         |         |         | 여       |         |         |         |        |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    |         | 모델 II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 사회<br>인구학적<br>특성   | 학 력            | 2.02    | .16     | .93     | .07     | 1.61    | .10     | 3.34    | .21**  |
|                    | 소 득            | -.08    | -.00    | -.20    | -.01    | 2.50    | .12     | -1.26   | -.06   |
|                    | 종교유무           | 2.79    | .10     | 3.77    | .13     | .10     | .03     | 3.45    | .09    |
|                    | 결혼년수           | -.25    | -.20    | -.24    | -.18    | -.76    | -.40*** | -.56    | -.29** |
| 용서과정<br>관련변인       | 문제발생시기         |         |         | .00     | .02     |         |         | .06     | .20    |
|                    | 고민기간           |         |         | -.05    | -.15    |         |         | -.05    | -.20   |
|                    |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         |         | 15.57   | -.21*   |         |         | -11.01  | -.22** |
|                    | 상처받은 정도        |         |         | -1.62   | -.14    |         |         | -.40    | -.02   |
|                    | 상처의 부당함 정도     |         |         | -2.12   | -.25*   |         |         | -.51    | -.05   |
|                    | 나 자신 책임 소재     |         |         | -2.60   | -.08    |         |         | -15.02  | -.16   |
|                    |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 |         |         | -4.28   | -.09    |         |         | -4.57   | -.12   |
|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   |                |         | 4.57    | -.09    |         |         | -8.82   | -.15    |        |
| R <sup>2</sup>     | .09            |         | .37     |         | .22     |         | .36     |         |        |
| Adj R <sup>2</sup> | .04            |         | .25     |         | .19     |         | .27     |         |        |
| $\Delta R^2$       | .09            |         | .28     |         | .22     |         | .14     |         |        |
| F                  | 1.72           |         | 3.16*** |         | 6.71*** |         | 4.15*** |         |        |

\*p<.05, \*\*p<.01, \*\*\*p<.001

가변인: 종교유무(무교=0, 기독교=1, 불교=1, 천주교=1),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의도성이 없다=0, 의도성이 있다=1, 나 자신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신앙심( $r=.81, p<.01$ ), 문제의 심각성 정도와 상처받은 정도 ( $r=.72, p<.01$ ), 상처의 부당성 여부와 상처의 부당함 정도 ( $r=.80, p<.01$ ), 상처를 준 사람 책임소재와 그 당시의 상황 책임소재( $r=-.73, p<.01$ ) 사이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 변인들 중 연령, 신앙심, 문제의 심각성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그 당시의 상황 책임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혼남녀의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학력, 소득, 종교유무, 결혼년수를 사용하였고, 용서과정 변인으로 문제발생시기, 고민기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함 정도, 나 자신 책임소재, 상처를 준 사람 책임소재,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소재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2) 정서적 용서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용서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용서에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정서적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와 ‘상처의 부당함 정도’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와

‘상처의 부당함 정도’는 총 36%로 정서적 용서를 설명하며, 정서적 용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 $\beta=-.25$ )’였고,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beta=-.21$ )’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정서적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력’, ‘결혼년수’,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결혼년수’는 총 22%로 정서적 용서를 설명하며, 모델 2에서 ‘학력’과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는 추가적으로 14%를 설명하여 총 36%로 여성의 정서적 용서를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결혼년수( $\beta=-.29$ )’였고, 그 다음으로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beta=-.22$ )’와 ‘학력( $\beta=.21$ )’의 순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용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이 더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서적 용서에 대한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지적 용서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영향력

용서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용서에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인지적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와 ‘상처받은 정도’로

<표 10> 인지적 용서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변인                 | 남              |         |         |         | 여       |         |         |         |       |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    |         | 모델 II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 사회<br>인구학적<br>특성   | 학력             | .74     | .07     | .75     | .07     | 2.67    | .19*    | 3.20    | .23*  |
|                    | 소득             | -1.46   | -.09    | -1.40   | -.08    | 1.82    | .10     | -.42    | -.02  |
|                    | 종교유무           | 2.39    | .10     | 1.97    | .09     | 1.89    | .06     | 3.52    | .11   |
|                    | 결혼년수           | -.14    | -.13    | -.24    | -.22    | -.64    | -.38*** | -.42    | -.25* |
| 용서과정<br>관련변인       | 문제발생시기         |         |         | .01     | .06     |         |         | .02     | .07   |
|                    | 고민기간           |         |         | .04     | .03     |         |         | -.03    | -.16  |
|                    |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         |         | -25.99  | -.43*** |         |         | -6.64   | -.15  |
|                    | 상처받은 정도        |         |         | -2.42   | -.26*** |         |         | -1.89   | -.14  |
|                    | 상처의 부당함 정도     |         |         | -1.38   | -.20    |         |         | .22     | .03   |
|                    | 나 자신 책임 소재     |         |         | .69     | .03     |         |         | -1.44   | -.02  |
|                    |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 |         |         | -1.80   | -.05    |         |         | -5.21   | -.16  |
|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   |                |         | .06     | .00     |         |         | -7.18   | -.14    |       |
| R <sup>2</sup>     | .04            |         | .42     |         | .25     |         | .35     |         |       |
| Adj R <sup>2</sup> | -.01           |         | .32     |         | .22     |         | .27     |         |       |
| $\Delta R^2$       | .04            |         | .39     |         | .25     |         | .10     |         |       |
| F                  | .73            |         | 4.03*** |         | 7.96*** |         | 4.01*** |         |       |

\* $p<.05$ , \*\*\* $p<.001$

가변인: 종교유무(무교=0, 기독교=1, 불교=1, 천주교=1),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의도성이 없다=0, 의도성이 있다=1, 나 자신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표 11> 행동적 용서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변인               |                    | 남    |      |        |       | 여       |         |         |        |
|------------------|--------------------|------|------|--------|-------|---------|---------|---------|--------|
|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    |         | 모델 II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사회<br>인구학적<br>특성 | 학력                 | .28  | .03  | -.23   | -.02  | 1.38    | .10     | 2.55    | .19    |
|                  | 소득                 | 2.55 | .16  | 2.52   | .15   | 2.22    | .13     | -.29    | -.02   |
|                  | 종교유무               | .15  | .01  | .31    | .01   | 2.26    | .07     | 4.23    | .14    |
|                  | 결혼년수               | -.24 | -.22 | -.26   | -.24  | -.59    | -.36*** | -.57    | -.35** |
| 용서과정<br>관련변인     | 문제발생시기             |      |      | .01    | .07   |         |         | .06     | .20    |
|                  | 고민기간               |      |      | -.01   | -.05  |         |         | -.01    | -.07   |
|                  |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      |      | -13.45 | -.22* |         |         | -7.17   | -.17   |
|                  | 상처받은 정도            |      |      | -.83   | -.09  |         |         | -1.37   | -.11   |
|                  | 상처의 부당함 정도         |      |      | -1.92  | -.28* |         |         | .19     | .02    |
|                  | 나 자신 책임 소재         |      |      | -.78   | -.03  |         |         | -17.07  | -.22*  |
|                  |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     |      |      | -2.13  | -.05  |         |         | -2.89   | -.09   |
|                  |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   |      |      | -.98   | -.02  |         |         | -5.43   | -.11   |
|                  | R <sup>2</sup>     | .09  |      | .29    |       | .20     |         | .31     |        |
|                  | Adj R <sup>2</sup> | .04  |      | .17    |       | .17     |         | .21     |        |
|                  | ΔR <sup>2</sup>    | .09  |      | .21    |       | .20     |         | .10     |        |
|                  | F                  | 1.76 |      | 2.29*  |       | 6.17*** |         | 3.23*** |        |

\*p<.05, \*\*p<.01, \*\*\*p<.001

가변인: 종교유무(무교=0, 기독교=1, 불교=1, 천주교=1),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의도성이 없다=0, 의도성이 있다=1), 나 자신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와 ‘상처받은 정도’는 총 42%로 인지적 용서를 설명하며, 인지적 용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β=-.43)’였고, ‘상처받은 정도(β=-.26)’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인지적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과 ‘결혼년수’였다. 모델 1에서 ‘학력’과 ‘결혼년수’는 25%로 인지적 용서를 설명하며, 모델 2에서도 두 변인은 10%를 설명하여 총 35%로 여성의 인지적 용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년수(β=-.25)’가 ‘학력(β=.21)’보다 인지적 용서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지적 용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이 더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인지적 용서에 대한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지적 용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설명력은 남성(42%)이 여성(3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동적 용서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영향력

용서의 하위영역인 행동적 용서에 기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용서과정 관련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행동적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와 ‘상처의 부당함 정도’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와 ‘상처의 부당함 정도’는 총 29%로 행동적 용서를 설명하며, 용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β=-.28)’였고,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β=-.22)’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행동적 용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년수’와 ‘나 자신 책임소재’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결혼년수’는 총 20%로 행동적 용서를 설명하며, 모델 2에서 ‘결혼년수’와 ‘나 자신 책임소재’는 추가적으로 10%를 설명하여 총 31%로 여성의 행동적 용서를 설명했고, ‘결혼년수(β=-.35)’가 ‘나 자신 책임소재(β=-.22)’보다 행동적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행동적 용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이 더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인지적 용서에 대한 용서과정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포용/공감'과 '친밀감/신뢰감의 회복'을 용서개념으로 높게 인식한다. '이해/포용/공감'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없이도 개인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비해 '친밀감/신뢰감의 회복'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개념으로 대인관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혼남녀가 용서를 인식함에 있어 개인내적인 부분과 대인관계적인 부분을 동시에 높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 남성은 '잘못에 대한 판정', '화해', '관계개선'을 용서개념으로 많이 인식하고, 여성은 '개인내적인 치유과정', '망각', '참기/인내'를 용서개념으로 인식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기혼남성들은 용서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고 용서를 통해 잘못을 판정받거나, 상대방과 화해하고 이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용서를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여성은 용서를 개인내적으로 이루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용서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용서를 하는 과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를 대상으로 용서가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서정선(2007)은 남편의 결혼만족에 아내의 용서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성들이 용서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며 결과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용서개념을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에게는 '이해/공감의 정도', '신뢰/친밀감의 정도', '개인의 인간성'이 용서에 도움을 주며, 여성에게는 상대방의 '변화노력/행동', '반성/사과의 표현', '이해/공감의 정도'가 용서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남성은 개인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움을 받으며, 여성은 상대방 요인에 의해 용서에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임효진(2005)의 연구에서 용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과가 보고되었는데, 사과를 받은 집단은 공감 수준이 높고, 친밀함의 회복과 잘못의 뉘우침에 대한 지각이 더 높게 나타나 용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과를 받고도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뉘우침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 '다음에 또 그럴 것 같다'는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임효진(200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용서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상대방의 사과나 변화행동, 반성의 표현이 나타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용서가 보다 잘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요인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 향후 용서를 활용한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할 때 효과성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녀의 접근방식에 차이를 두고, 남녀의 특성에 따라 용서과정을 다르게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혼남녀는 모두 용서를 통해서 '자기 성장'과 '부정적 정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연구한 서정선(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용서의 효과가 상대방보다는 용서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타적인 성격보다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기혼남녀 모두에게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는 '가족관계'이다. 이는 기혼남녀가 시댁관계나 처가관계, 기타 친인척 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대학생 137명과 그들의 부모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영희(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친구와 이성친구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의 경우에는 가족과 직장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가족 중에서도 부부나 부모형제를 제외한 기타가족인 시집식구(시부모, 시형제)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문제발생시기, 고민기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성 여부, 상처의 부당함 정도, 문제발생 책임소재 모두에서 남녀 간의 경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남녀 모두에게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결혼 후 3년 이내가 과반 수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은 결혼 후 '3개월 이내'와 '1년 이내'에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은 '1년에서 3년 사이'와 '3개월 이내'가 높다. 결혼 후 '3년 이내'는 보통 신혼기와 첫 자녀가 출생하는 확대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본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부들이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상처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현숙·서동인(1994)은 각종 상담사례나 연구결과에서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신혼기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배우자와의 성격 및 습관차이, 시댁 및 처가 등 친족관계,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 문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간의 상처를 남기는 문제로 나타난 '배우자의 이해하기 힘든 성격 및 가치관', '생활습관 및 태도', '부부간 의사소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결혼 초기인 신혼기에서 확대기 사이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결혼초기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유지와 질적인 향상, 그리고 기혼남녀의 용서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문제발생시기가 이르고 문제로



인해 고민한 기간이 더 길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제에 의도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의 심각성이나 상처를 받는 깊이, 상처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정도도 깊다는 결과와 연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아직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용서과정에서 남녀 간의 가장 뚜렷한 경향차이를 보인 것은 ‘상처의 부당성 여부’와 ‘문제발생 책임소재’이다. ‘상처의 부당성’에 대해서 남성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7.7%로 ‘부당하다’는 응답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부당하다’는 응답이 76.0%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부당하다고 여긴다. ‘문제 발생의 책임 소재’에서도 남성은 나 자신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두는 반면, 여성은 상처를 준 사람과 그 당시의 상황에 둔다. 배준성(2006)은 내재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려 하고, 문제발생의 책임을 본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는 나 자신에게 책임 소재를 두는 사람들의 경우 내재적 통제소재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는 경향과 문제를 해결하여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외재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의 경우, 영향력 있는 타인이나 우연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두는 경향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용서를 할 확률이 더 높음을 예측하게 한다.

셋째, 정서적 용서, 인지적 용서, 행동적 용서의 세 영역 모두 남성의 용서수준이 더 높고, 그 중에서도 인지적 용서에서의 남녀 차이가 가장 크다. 이것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최인숙(2005)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성별의 차이가 용서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남성의 정서적 용서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자신의 상처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문제 발생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정서적 용서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남성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의 정서적 용서는 ‘결혼년수’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그리고 ‘학력’에 영향을 받는다. 즉, 학력이 낮고, 결혼년수가 길어지고, 문제발생의 의도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정서적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남성의 인지적 용서는 ‘상처받은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상처를 깊게 받고 문제발생에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인지적 용서를 하기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여성의 인지적 용서는 ‘결혼년수’와 ‘학력’에 영향을 받으며, 결혼년수가 오래되고 학력이 낮은 경우 인지적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행동적 용서에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

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가 영향력을 갖는다. 남성은 상처를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발생에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행동적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여성은 ‘결혼년수’와 ‘나 자신 책임소재’가 행동적 용서에 영향력을 가지며, 결혼년수가 오래 되고 문제 발생의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행동적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성에게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용서과정 관련변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문제발생의 의도성, 상처받은 정도, 상처의 부당함 정도의 영향력이 크다. 이에 비해 여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결혼년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결혼년수’가 증가하는 것이 여성들의 용서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최인숙(2005)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거나 결혼년수가 높은 부부일수록 용서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경험한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인식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정현숙·서동인, 1994),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표집으로 인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혼남녀가 부부관계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며 그로 인한 용서경향을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하였다. 그러나 용서는 개인에게 상처를 발생시킨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혼남녀의 용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혼남녀가 경험하는 문제별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학력과 고소득층으로 표집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정도에 따라 용서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최미옥, 2007; 최인숙, 2005)를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표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용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용서측정 척도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종효(2006)가 타당화 작업을 거친 EFI-K(Enright Forgiveness Inventory-K)를 사용하였지만, 상대방을 향한 긍정성과 부정성만을 가지고 기혼남녀의 용서를 측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기혼남녀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양상의 파악을 통해 용서 연구의 밑그림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용서라는 복잡한 개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양적 연구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특히 기혼남녀가

인식하고 있는 용서 개념이나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미, 개인만의 독특한 경험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혼남녀의 용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용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기혼남녀의 용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특히 용서과정 관련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용서라는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기혼남녀가 인식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 도와주는 요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용서과정 관련변인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혼남녀의 용서과정 관련변인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으로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남녀 간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향후 부부교육이나 부부치료를 위한 실제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김광수(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2001). 용서에 대한 고찰과 교육적 적용. *교육학연구*, 39(2), 10-24.
- 김광수(2002a). 용서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 김광수(2002b).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상담연구*, 10, 165-191.
- 김기범 · 임효진(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사회와성격심리학회지*, 20(2), 19-33.
- 김수영(2003). 용서수준과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7).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용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2003). 종교, 양육환경, 자아존중감에 따른 용서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효(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_\_\_\_\_(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진순(2006).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용서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욱(2007).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자(2003). 부부갈등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은(2006). 성격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배준성(2006). IPC통제소재 및 주제성 · 대상성 · 자율성 자기개념과 용서의 관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정선(2007).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논문.
- 오영희(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_\_\_\_\_(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0(2), 467-486.
- 이선영(2007). 인지적 재구성을 통한 용서에 대한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8). 용서받기와 용서하기가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 신뢰감에 미치는 효과: 완벽주의와 문화성향을 조절변인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2005). 용서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진(2005). 정 성향과 사과 및 인고, 공감이 대인관계의 용서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진 · 김기범(2004). 용서의 심리학;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관용적인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317-318.
- 전세훈(2008). 용서행동의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 서동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제1권.
- 최미옥(2007). 기혼여성의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인숙(2005). 부부의 위기에 대한 용서경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은경(2003). 신앙성숙도 및 영적 안녕과 용서의 관계: 기독교 학생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 · 김태훈(2006). 용서훈련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분노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동아논문집*, 42, 111-149.
- Bass, E. and Davis, L.(1994). *The courage to heal*. N.Y.: Harper

- Perennial.
- Brakenhielm, C. R.(1993). *Forgivene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Brandsma, J. M.(1982). Forgiveness: A dynamic, theological, and therapeutic analysis. *Pastoral Psychology*, 31, 41-50.
- Connery, T. J.(2002). Forgiveness: a correlational study between the spirit of forgiveness and physical health in senior citizens. The University of Florida.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Day, L, & Maltby, J.(2005). Forgiveness and social loneliness. *Journal of Psychology*, 139(6), 553-555.
- Davison, L. L.(2002). Forgiveness and attachment in college students. *The Sciences & Engineering*, 61.
- Denton, R.T.& Martin, M.W.(1998). Defining forgivenes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process and rol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81-292.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APA.
- Enright, R. D., Santos, M. J. D., & Al-Mabuk, R. (1989). The adolescent as forgiver. *Journal of Adolescence*, 12, 95-110.
- Enright, R. D. & Zell, R. L.(1989). Problems encountered when we forgive one another.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52-60.
- Enright, R. D.(2004). *Forgiveness is a choice*. 채규만 역. 용서는 선택이다. 서울: 학지사.
- Emmos, R. A.(2000). Personality and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ament & C. E. Thoresen(Ed),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156-175). New York: Guilford Press.
- Gassin, E. A.(1995).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Hargrave, T. D.(1994). *Family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N.Y.; Brunner/Mazel. 문미선 역. 가족치료와 용서. 서울: 하나의학사.
- Helb, J. H. & Enright, R. D.(1993). Forgiveness on an integrated theory of emotional development. In D. Cicchetti & P. Hesse(Eds), *Emotional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Hill, E. W. (2001). Understanding forgiveness as discovery: Implications for marital and family therap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3, 369-384.
- Holmgren, M. R.(1993). Forgiveness and the intrinsic value of person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0, 341-352.
- Johnson, K. A. (1986). A model of forgiveness: Theory formulation and research implications. Doctoral degree research paper. Biola University, La Mirada, CA.
- Kaplan, B.(1992). Social health and the forgiving heart: The type B story.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 3-14.
- Kathleen A, L. R., Johan C, K., Cynthia, S., Meirav, E. M., Laura, E.(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8(1), 51-58.
- Knutson, J. A.(2003). Strengthening marriage through the practice of forgiveness.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 Rachal, K. C.(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36.
- Morrow, L.(1984). Why forgive? *Time*, 9, 26-33.
- Murphy, J. (1982). Forgiveness and resentment. *Midwest study of Philosophy*, 7, 503-516.
- Paz, R., Neto, F., & Mullet, E. (2007). Forgivenes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Buddhists and Christians living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of Religion*, 17, 289-301.
- Paz, R., Neto, F., & Mullet, E. (2008). Forgiveness: A China-Western Europe comparis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42(2), 147-157.
- Pingleton, J.(1989). The role and function of forgiveness in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7, 27-35.
- Poloma, M., & Gallup, G.(1991). *Varieties of prayer*. Philadelphia: Trinity Press.
- Skinner, S. W.(1998). The function and role of forgiveness in working with couples and families: clearing the ground.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3-19.
- Smedes, L. B.(1984).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 Row.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R.,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oussaint, L. L., Williams, D. R., Musick, M. A., & Everson, S. A.(2001). Forgiveness and health: Age differences in a U.S.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4), 249-257.
- Wade, N. G., & Wordington, E. L. Jr. (2003). Overcoming interpersonal offence: Is forgiveness the only way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343-353.

Williamson, I. T.(2004). Forgive anxiety: Validation of a new mediator of forgivenes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접수일 : 2009년 05월 14일

심사일 : 2009년 06월 04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8월 17일

<부록 1> 기혼남성의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표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학력                | 1     |       |      |       |      |       |       |        |       |      |      |    |
| 2. 소득                | .39** | 1     | **   |       |      |       |       |        |       |      |      |    |
| 3. 종교유무              | .25*  | .08   | 1*   |       |      |       |       |        |       |      |      |    |
| 4. 결혼년수              | -.19  | -.06  | .09  | 1     |      |       |       |        |       |      |      |    |
| 5. 문제발생시기            | .06   | -.06  | .12  | .59** | 1    |       |       |        |       |      |      |    |
| 6. 고민기간              | -.23  | -.08  | .13  | .23*  | .12  | 1     |       |        |       |      |      |    |
| 7. 문제발생의 의도성         | .01   | .01   | .05  | .01   | .10  | -.00  | 1     |        |       |      |      |    |
| 8. 상처 받은 정도          | -.00  | -.04  | -.03 | -.07  | .06  | .45** | .12   | 1      |       |      |      |    |
| 9. 상처의 부당함 정도        | -.08  | -.10  | -.05 | .17   | .09  | .28** | .28** | -.36** | 1     |      |      |    |
| 10. 나 자신 책임 소재       | -.07  | -.02  | -.01 | .04   | .11  | .02   | -.13  | -.14   | -.05  | 1    |      |    |
| 11.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   | -.15  | -.24* | .11  | -.01  | -.14 | .12   | .17   | .31**  | .29** | -.20 | 1    |    |
| 12.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 | .11   | .11   | -.02 | .00   | .11  | -.12  | -.06  | .03    | -.26* | -.18 | -.09 | 1  |

\* p<.05 \*\* p<.01

가변인: 종교 유무(무교=0, 기독교=1, 불교=1, 천주교=1),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의도성이 없다=0, 의도성이 있다=1, 나 자신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부록 2> 기혼여성의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표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학력                | 1      |       |       |       |      |       |       |       |       |      |       |    |
| 2. 소득                | .35    | 1     |       |       |      |       |       |       |       |      |       |    |
| 3. 종교유무              | .11    | .03   | 1     |       |      |       |       |       |       |      |       |    |
| 4. 결혼년수              | -.28** | -.21* | .15   | 1     |      |       |       |       |       |      |       |    |
| 5. 문제발생시기            | -.28** | .05   | -.01  | .35** | 1    |       |       |       |       |      |       |    |
| 6. 고민기간              | .07    | -.22* | -.20* | .40** | -.16 | 1     |       |       |       |      |       |    |
| 7. 문제발생의 의도성         | -.15   | -.32* | -.01  | .31** | .20* | .22*  | 1     |       |       |      |       |    |
| 8. 상처받은 정도           | -.04   | -.12  | .14   | .12   | .21* | .28** | .32** | 1     |       |      |       |    |
| 9. 상처의 부당함 정도        | -.06   | -.13  | .14   | .20*  | .13  | .19   | .26*  | .53** | 1     |      |       |    |
| 10. 나 자신 책임 소재       | .11    | -.03  | -.17  | -.06  | .14  | -.01  | -.09  | .03   | -.19  | 1    |       |    |
| 11.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   | -.13   | -.15  | -.11  | .19   | .05  | .10   | .24*  | .09   | .21*  | -.14 | 1     |    |
| 12.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 | -.01   | -.01  | .10   | .06   | .19  | -.08  | .03   | .03   | .26** | -.07 | -.24* | 1  |

\*p<.05, \*\*\*p<.001

가변인: 종교 유무(무교=0, 기독교=1, 불교=1, 천주교=1),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의도성이 없다=0, 의도성이 있다=1, 나 자신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상처를 준 사람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 문제 자체의 심각성 책임 소재(아니다=0, 그렇다=1)